

‘400년 인연’ 해남군-중국 교류협력 새 장 연다

명현관 군수, 주한중국대사 방문
해남쌀 수출 계기 다양한 교류 약속
진린 장군 후손 정착 등 깊은 인연

정유재란 때 맺은 해남과 중국의 ‘400년 인연’이 새로운 교류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은 명현관 군수가 지난 4일 서울 주한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상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만남은 국내 최초로 중국유기인증(CQC)을 받은 해남 친환경쌀의 중국 수출을 계기로, 중국 측이 해남군과의 교류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상하이밍 중국대사가 명현관 군수를 초청해 식사했다.

해남군은 관내 가공수출 쌀전문 재배단지에서 재배한 기능성 쌀인 ‘친환경 가바쌀’ 10t을 처음으로 이번 달 중국에 수출한다.

땅끝항도친환경영농법인의 친환경 가바쌀은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 국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최고급쌀로 2018년부터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있다.

명 군수는 수출업체-환경경제문화교육협회 관계

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남의 친환경 농식품 현황을 소개하고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한·중 문화경제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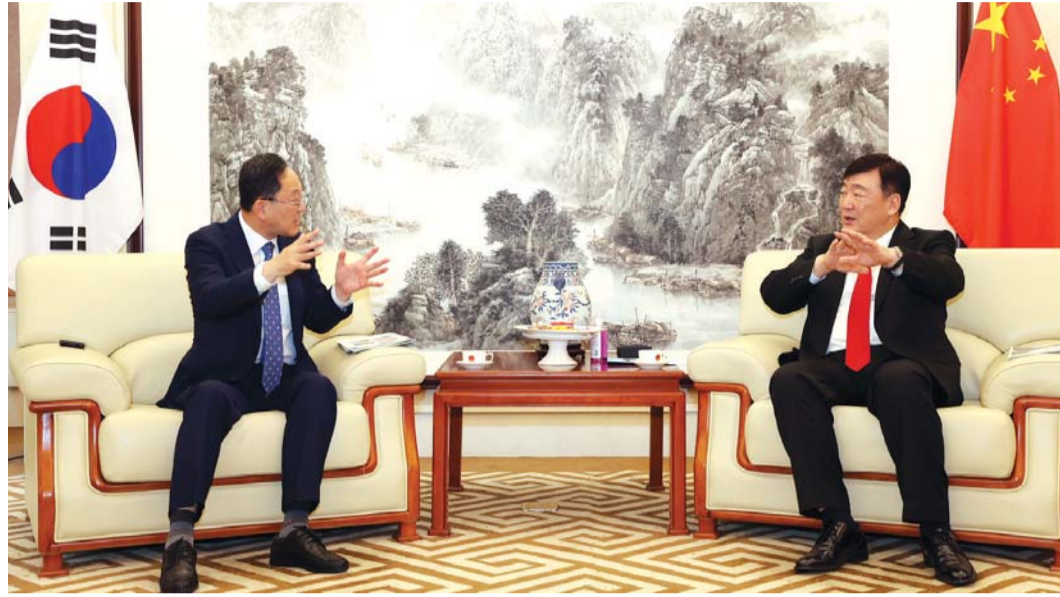
명 군수는 “중국은 해남군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친환경 농식품의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조만간 상하이밍 대사를 해남군에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하이밍 대사는 “해남군과 중국 간 투자 유치와 경제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해남 방문을 약속했다. 또 해남 황조별묘 등 400년 이상 이어져 온 해남과 중국의 인연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해남군 산이명 황조마을에는 정유재란(1597년 8월~1598년 12월) 당시 수군 도독으로 출병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을 물리친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이주·정착해 광동진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진린 장군의 사당인 황조별묘도 있다.

지난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 서울대 강연에서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을 거쳐 두터운 정을 쌓은 이웃”임을 강조하며 “명나라 때 등자통 장군과 조선 왕조의 이순신 장군이 노랑해전에서 각각 순직하였으며 오늘날 여전히 명나라 장군 진린의 후손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명현관(왼쪽) 해남군수가 지난 4일 서울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상하이밍 대사와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언급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2015년에는 추귀홍(邱輝興) 주한 중국대사가 황조별묘를 직접 방문했다.

해남군은 진린장군의 고향인 중국 옹원현과

1999년 자매결연을 하고 상호 방문과 함께 매년 명량대첩축제에 진린 장군 후손을 초청해 교류하는 등 우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멸종위기 검은머리물떼새 신안 섬에서 99쌍 번식



신안 압해도 인근 무인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 99쌍의 번식이 확인됐다. 휴식 중인 검은머리물떼새. <신안군 제공>

신안 무인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 99쌍이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종과 서식지 보전, 다양한 생물자원 발굴을 위해 최근 갯벌과 인접한 연안의 압해, 안좌, 지도 등 무인도서 15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압해도 인근 등 48개 섬에서 99쌍의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을 확인했다.

주요 서식지인 신안 압해도 인근 갯벌에는 가을-겨울철 비번식기에 검은머리물떼새 약 500여 개체가 이상이 먹이활동을 하며 활동한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번식하고 한국, 중국, 남아시아 등지에서 월동하며 국내에서는 국지적으로 번식하는 드문 텃새이다. 해안가 바위 또는 갯벌에서 계, 굴, 조개 등을 먹으며 둥지는 바위 위 오목한 곳에 튼다. 보통 3개의 알을

낳아 암수가 교대로 포란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천연기념물 326호로 지정된 보호종이다.

과거 서남해안에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한 새로 알려졌지만 1971년 인천 강화도에서 처음 번식이 확인된 이후 서해안의 작은 무인도에서 번식이 확인되고 있다. 신안군은 신안 갯벌을 찾는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압해도 갯벌 주요 지점에 보호시설 200m를 설치했다.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담당은 “청정한 신안 갯벌은 유기물과 먹이원이 풍부해 종다양성이 높고 보전 가치와 생태계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으로 신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명사십리 해변에 멀티플렉스 설치 ‘눈길’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포스트 코로나 피서 문화 선도

완도군이 해변에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피서 문화를 선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명사십리 해변에 멀티플렉스를 설치해 오는 9일까지 주야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펼쳐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오는 16일까지 매일 운영한다.

이름 명사십리해변에 물리는 행락객들을 사전에 분산시켜 건강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즐기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심심 멀티플렉스는 2면의 대형 화면과 1면의 소형 화면을 세 방향으로 설치해 주간에는 감염병 예방 캠페인과 해수욕장 안전 이용 수칙을 수시로 송출하고 관광, 해양치유, 해조류박람회 등 완도 홍보를 하고 있다.

돌발 영상 퀴즈와 신정곡 이벤트, SNS 해시태그 이벤트, 전광판 감동 이벤트로 참가자에게 완도사



완도군이 명사십리 해변에 멀티플렉스를 설치, 오는 9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완도군 제공>

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에게 추억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심심 멀티플렉스는 관내 업소(음식점·카페, 숙박업소 등) 정보를 전광판에 노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야간에는 추억의 영화를 상영해 자칫 뜸뜨기 쉬운 해변의 밤 분위기를 차분하게 이끌어 가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야간에 2인 이상이 모여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해변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혈액 수급 위기 극복 앞장 목포해경·교도소 단체 헌혈 동참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교도소가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 <사진>

목포해경 소속 경찰관과 의무경찰 등 30여명은 지난 4일 경찰서와 목포해경 전용부드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헌혈 버스를 이용해 헌혈했다.

헌혈에 참여한 장경환 경사는 “코로나19로 헌혈 공급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여섯 번째 헌혈 행사를 했다. 경찰관과 의무경찰 등 190여명이 참여했다.

목포교도소도 이날 청사 앞 주차장에서 광주전남혈액원 차량 지원으로 사랑의 헌혈을 했다.

김춘오 목포교도소장은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사랑 나눔 실천 운동”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소방 점검 보고서 7일 내 제출 목포소방서, 소방법 개정 따라

목포소방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작동기능과 종합 정밀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결과보고서는 점검 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스프링클러 법적 의무 설치 대상물은 오는 9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지역민들에게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들도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